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기획재정부



경제정보센터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2017. 1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습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노년기(60세 이후)에 해당하는 독자가 생활 속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을 익힘으로써 경제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역량은 자산 관리, 위기 관리, 변화 대응, 노후 대비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의 각 주제에 포함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학습 목표의 역할을 합니다. 학습자로서 독자가 글을 읽은 뒤,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주제의 첫 페이지에 실린 큰따옴표 안의 말은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2017. 12.)』에 포함된 내용으로, 본 학습 자료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화체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본 자료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목 차

▶ 자산 관리 역량

노후자산, 숨어 있는 보물찾기	• 005
100세 시대, 안전한 자산 관리법	• 013
노후자금 늘리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 025
퇴직금, 나의 노후를 지키는 보디가드	• 033

▶ 위기 관리 역량

무서운 의료비 지출, 똑똑하게 대비하기	• 041
노년층 대상 사기! 조심하세요	• 049
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	• 057

▶ 변화 대응 역량

디지털 세계로 초대합니다!	• 065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운동: 내 일자리 찾기	• 073
내 주변 경제 환경, 어떻게 바뀌고 있나	• 087

▶ 노후 대비 역량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서비스	• 095
노후의 행복, 지속적인 준비와 실천이 중요	• 103

연령대와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

노후자산, 숨어 있는 보물찾기

“자산과 부채를 균형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대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대출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그게 더 이익인가, 아니면 대출을 놔두는 게 나은가 갈등이 생겼고요.”



“65세가 넘어서 실비 보험에 들면 입원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늦어도 65세 전에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현재 내가 입원하기 전에는 통원 치료비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이 나이에 이것을 들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성취기준

연령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다.

성취수준

높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평가한 후 연령과 건강,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재구성할 수 있다.

중

연령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다.

하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편의점 진열대의 비밀

편의점에 가면 계절의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스크를 진열합니다. 겨울에는 호빵이나 군고구마를 전면 배치해 고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렇듯 계절별로 고객의 선호가 높은 제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이유는 판매수입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노년기의 자산 관리도 편의점 진열대처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기 때문에, 주택 구매와 같은 큰 규모의 지출이 일어나도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적어지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 때문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소득에 맞게 우리의 노후자금 진열대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들여다보고, 현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길어진 노후를 위해, 다가올 경제 상황 변화를 예측해 보고, 이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는 38.3%, ‘매우 부족한 가구’는 21.2%로, 절반 이상이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¹⁾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 부담이 되는 재무사건을 감당하느라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1) 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현재 부채가 있다면 노후자금을 저축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거나 지출을 조정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상황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출 상황에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 빌린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다른 빚을 내기보다는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줄어든 소득에 맞게 주택 규모를 줄이고 그 차액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만들기보다 주택연금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의 빚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 한도가 지급총액의 70%이기 때문에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큰 수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위해 긴급하게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배우자의 장제비(장례비) 등 4가지 목적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하기

일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결국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한 A 씨(60대).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의 사연에 공감하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주택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60~84세 일반 노년가구의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였습니다.²⁾ 이렇게 노후자산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다면, 현금이 묶여 있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하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급매로 팔 경우 시세보다 낮게 판매하게 되어 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어야 연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진 자산의 유형을 파악하고 조정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62~65세(2019년 기준)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기 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습니다. 1년마다 7.2%(월 0.6%)씩 최대 5년간 더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총 연금액의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2019년 기준, 235만 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줄여 지급하는데, 이때 연금 수급 시점을 연기하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연금을 늘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 자신이 소유한 주택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내가 소유한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정기적으로 확보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종신방식, 인출한도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연금 형태로 받는 대출상환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자동 승계되며, 가입 후에도 주택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택의 사용과 처분을 가입자가 결정합니다. 단, 주택금융공사에 1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해 연금을 집값보다 덜 받게 되면 차액 정산 후 상속하게 되며, 연금을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에는 초과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농가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자산의 대부분이 농지에 몰려 있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본인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해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처럼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에는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반대로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지급되어 온 연금보다 적을 때는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 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농지연금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 첫 시작은 소액투자로 투자수익을 경험하라

뚝 떨어진 금리는 예·적금 보유자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신문의 경제면에는 ‘예금 금리 0%대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초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만으로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외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안전한 금융상품부터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액투자로 시작해, 자신만의 수익률을 정하고 목표수익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평소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원이 권유하는 상품 중에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했다면 환매해 재투자의 기회를 열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 손실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채처럼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저위험·저수익 상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상의 중장기 상품을 선택해, 경기 흐름을 지켜보며 투자의 시각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참여,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금융 지식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부른 투자 결정은 노후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을 관리하자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³⁾ 늘어난 의료비와 사회보험 지출 등의 부담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1인당 438만 7천 원으로, 전년(398만 7천 원)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⁴⁾

규모가 큰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험에 가입해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해 의료비나 간병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⁵⁾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 질병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가입약관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장 범위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 관련 질병에 대비하려면 특약을 통해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과 뇌혈관질환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병자보험은 당뇨, 고혈압, 뇌혈성질환 등 만성질환에 특화된 상품으로, 간편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5배 비싼 편이지만, 고가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일반 보험에 비해 최대 가입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70~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새로 출시된 유병자보험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값

3)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임.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따라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함.

4) 통계청, 「2019년 고령자 통계」

5)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기 관리 역량 <무서운 의료비 지출, 똑똑하게 대비하기>를 참고하기 바람.

도 비싸기 때문에 가게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 꿀팁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활용

2019년에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복잡한 구성의 상품이어서 가입 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판매원의 권유만 믿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가 20%를 웃돌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해당 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가입에 따르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65세 이상 고객은 희망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과 같은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활용한 '휴면 재산 찾기 서비스' 안내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휴면 예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⁶⁾ 주민센터 담당자가 휴면 예금 및 보험금의 조회·지급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전달합니다. 휴면 재산이 확인될 경우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예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6) 노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노후 대비 역량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참고하기 바람.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자산 관리

100세 시대, 안전한 자산 관리법

“안정적인 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하고 싶고...”



“요즘은 수명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80인지 90인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 우리 부부 앞으로 10년 같지, 20년 같지.... 그거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성취기준

노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 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자산 관리 교육에 참여해 현재 자신의 자산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

중

노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 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하

안정적 생활 유지 관점에서 노년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자금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0세는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가입한 연금의 개시 시점과 수령기간, 매월 수령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병원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속할 자산이 있다면, 상속 시기와 규모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만약 별도로 준비한 노후 자금이 없다면,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인생 2막, 이렇게 시작하세요

국제연합(UN)은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새로운 생애주기 기준을 제안했습니다.¹⁾ 이 기준에 따르면, 18~65세가 청년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이유로 활동성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2막을 계획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어떤 노후를 보낼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 가족, 건강, 일, 재무, 사회활동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행복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누구와 어디서,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로 생활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은퇴 후 예상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수령 가능한 연금액과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하고, 내가 목표로 삼은 생활비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떻

1)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 장수노인 (2015년 기준)

게 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를 줄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얻기 위한 재취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목표는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개인마다 투자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합한 자산 관리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 자산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릅니다. 지나치게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 손실을 입게 되면, 장기간 준비한 노후자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직접투자(예: 매매할 주식을 직접 선정)보다는 간접투자(예: 펀드 가입)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의 상품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상품에 자금을 나눠 담는 분산투자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노후에는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이 부동산이나 장기 금융상품에 묶여 있다면 현금화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품의 만기일을 다양화해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최소 6개월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장기 상품보다는 현금화하기 쉬운 단기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

누구에게나 노후는 찾아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인

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평균 노후 생활비로 부부는 243만 4천 원, 개인(1인)은 153만 7천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²⁾ 물론 거주 지역,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후 예상 생활비와 의료비, 여가비, 경조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생활 4대 영역을 ① 재무, ② 건강, ③ 여가, ④ 대인관계로 설정하고, 노후준비종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종합진단 서비스는 진단, 상담, 교육, 기관연계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공됩니다. 먼저 진단 서비스는,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분야의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상담 서비스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무 영역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비재무 영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요한 이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인류가 꿈꾸어 온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 없이 노후가 길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질병, 상해,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보험과 연금이 필수입니다.

2)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 2018

과거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있어도 60대까지 간편심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³⁾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에 한해 진단비와 입원, 수술,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혈압·당뇨 등에 대해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금은 노후에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3층 연금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3층 연금 체계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3층 연금 체계



출처: 국민연금공단

3) 단, 3개월 내 입원·수술 추가 검사 필요,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에 해당되면 가입 불가

다양한 종류의 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끝나도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데, 55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정상 수령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56세는 75%, 57세는 82%, 59세는 94%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의 실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급을 개시한 이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남은 연금액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 부담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연금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미룰 때마다 7.2%가 연금액에 가산되며, 5년을 연기하면 총 연금액의 36%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할 때는 자신의 소득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당장 지출해야 할 생활비나 의료비가 부족하다면, 연금을 바로 수령해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에서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상품 모두 중도해약하면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할 때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 수령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확정형’은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한 다음 기간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균등하게 분할해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잔여 연금은 상속인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형’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상속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형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속 확정형과 사망 시점까지 계속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상속되는 상속종신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이가 나며, 연금 가입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간 동안 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해 두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20년 동안은 연금이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⁴⁾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회사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 자금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도나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2022년까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4)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 관리 역량 <퇴직금, 나의 노후를 지키는 보디가드>를 참고하기 바람.

*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⁵⁾ 상품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고정 소득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주택연금 가입 정보

분류	내용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전세 임대 중인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로 지정 가능
수령 방법	·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으나 11년째부터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으로 구분 · 가입자의 3/4이 정액형
현재 가입자 추세	· 주택연금은 도입 12년째인 2018년 누적 가입자 6만 명을 넘어섬. ·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500만 원(월평균 약 101만 원)
장점	·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 보장 · 부부가 모두 사망하더라도 주택 처분액이 연금 총액보다 크면 차액은 상속 · 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많아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됨.
집값 변동에 따른 대처	·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져도 기존 가입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음. ·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주택가격이 덜 오를수록 유리 ·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뛰었다면 중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5) 역모기지론: 모기지론과는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 준다'는 것이 기본 개념임.

분류	내용
상환 및 해지 조건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함께 제반 비용을 상환 ·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재가입(동일 주택)은 불가
가입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 대열람 표 준비) · 상담은 전화로,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

각종 연금정보를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는 각종 연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국민·퇴직·개인연금에 납부총액과 연금 개시일, 예상 연금액 등 전반적인 나의 노후자금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설계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노후 재무설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나의 연금자산 수준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정확히 얼마나 더 필요한지 산정해 줍니다. 예상 은퇴연령과 같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 있는 ‘연금저축어드바이저(advisor.fss.or.kr)’를 활용하면 내게 맞는 구체적인 대안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재무진단 결과를 보여주고 개인 성향과 상황에 맞는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상품 목록에는 연평균 수익률과 공시이율, 상품 유지 건수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밖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주요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털의 메뉴 중 ‘금융상품한눈에’를 클릭하면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보험,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로 노후설계 받아보세요



건설 일용근로자인 A 씨(62세)는 월소득이 120만 원 안팎이다. 현재 시가 1억 원인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A 씨는 배우자와는 사별했고, 곧 결혼 예정인 자녀가 2명 있다. 그동안 자녀 결혼자금으로 7,000만 원을 모았고, 2개월 후 만기인 3,000만 원 적금이 있다. 현재 월소득 중 100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매달 20만 원씩 적금에 든 상태다. A 씨는 국민연금을 7개월간 납부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다른 노후 연금자산 총당 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볼 겸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찾았다.

출처: 헤럴드경제, 「당신의 노후 안녕하십니까, 실전사례 ③」, 2019. 5. 7.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A 씨에게 근로를 지속하되, 건강연령을 고려해 65세 이후 노인일 자리를 추천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부상 위험이 비교적 큰 관계로 70세까지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일 자리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노인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또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⁶⁾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는 수급 연령에는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반환일 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을 빌려줌으로써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 씨는 7개월의 가입이력이 있어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에 필요한 1,4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공단의 지원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1,100만 원은 2개월 뒤에 수령하는 만기 적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시 월 24만 원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6)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조건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분할 상황이 가능함.

아울러 주택연금에 들 것을 조언했습니다. 보유 중인 1억 원의 주택자산을 활용해 65세부터 종신 지급방식을 선택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24만 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도 활용하도록 추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녀 결혼자금도 재설계해 보기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신혼집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A 씨는 건강하게 일하며,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65세 이후에 건강연령을 고려해 노인일자리를 추천받기로 했고,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매달 24만 원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 24만 원의 추가적인 연금자산도 확보했습니다. 2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 수령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65세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0만 원,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자산으로 73만 원 등 매달 총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유 자산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
노후자금 늘리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봉급쟁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목돈을 못 마련했습니다. 재테크 방법, 부동산 관련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경제라고 하면 광범위하게만 생각하지 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알지,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은행에 넣으면 되는 거다’ 생각했지.”

성취기준

자산 운용에 관심을
 갖고 자산 규모를
 늘리기 위한 금융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산의 금융투자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중

자산 운용에 관심을 갖고 자산 규모를 늘리기 위한 금융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

금융투자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길어진 노후, 준비되었을 때만 축복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7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이 되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빠른 변화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52%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은퇴자의 노후 대비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은퇴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행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문화가 약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가 부족한 은퇴자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에 적극적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은퇴 후의 삶이 길면 길수록 점점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위험(Risk)’이라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소리 없이 줄어드는 금고 안 내 자산

오랜 기간 동안 현직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퇴 전의 사회적 지위나 노후 준비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인과의 만남과 같은 사회적 교류도 줄어들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노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경제문제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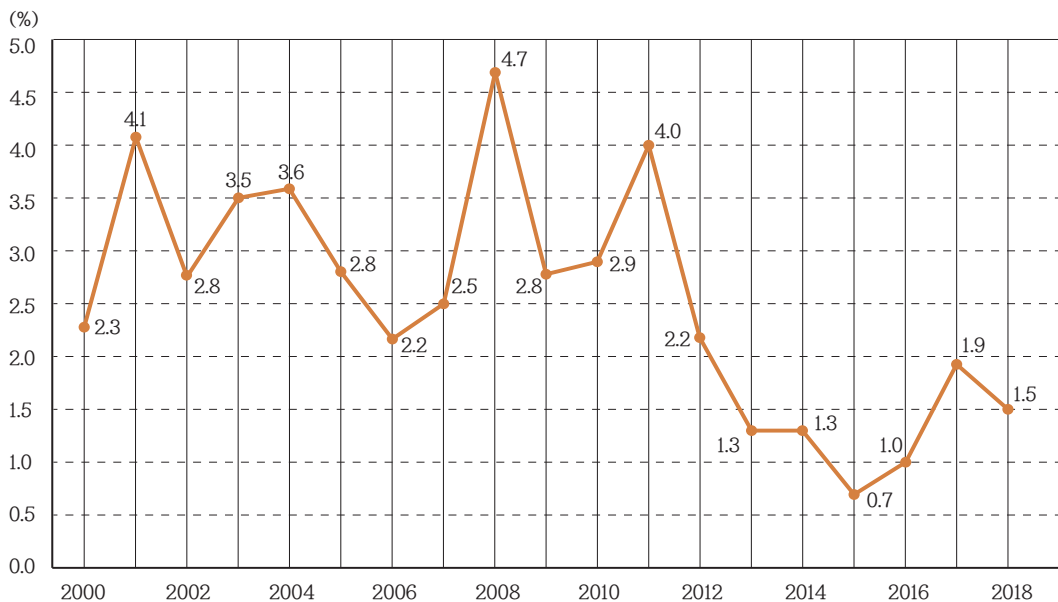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당면한 노후의 경제문제를 어떻게 하면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달라 해법도 다를 수 있지만,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자산 늘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자산 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원금 보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에 이익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으면 당장 생활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비해 원금을 만회할 시간이나 기회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 금융자산을 금고 안에만 보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는 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같은 액수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나 몇몇 국가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물가는 늘 상승해 왔습니다. 물가의 하락보다 수요에 의한 적정한 수준의 물가 상승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낮춰 적정 물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1960~70년대와 같이 연평균 10~20%씩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이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대에 머물고 있지만, 2000년부터 10여 년간은 연평균 3% 수준을 기록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물가 상승은 늘 일어나 현금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소극적인 자산 운용은 자산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림 2000~2018 연도별 소비자물가 변동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노후의 삶을 바꾸는 자산 운용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연 10%를 넘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적금 금리는 연 1~2%가 대부분입니다. 이자 소득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금을 겨우 보전하는 수준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 통계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길어진 수명과 부족한 노후 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적금만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금융투자 방법을 찾아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산 운용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꾸자

이제부터 은퇴자들은 자산 운용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의 구성은 70%가량이 예금 중심의 저축상품이고, 30%가량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¹⁾ 반면, 미국의 가계금융자산은 70~80%가 금융투자상품에, 20~30%가 저축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 구성은,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금융투자상품으로 옮겨간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와는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가계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당장 금융투자 비중을 높일 수는 없겠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의 예·적금 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가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수익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의 예·적금보다 몇 배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의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과 원칙, 그리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은 금융투자 습관과 전략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김건·이현중, 『행복한 노후대비 100문 100답』, 평단, 2018

따라서 은퇴자들은 금융투자 방법은 물론 투자 상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서적을 통한 학습이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투자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 주식 투자자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A 씨(60대)는 원금 5,0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해 연평균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실패한 경험과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운 후 철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용거래가 많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테마주나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투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만 거래합니다. 또한 증권사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손실을 차단하고, 자신이 목표로 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하게 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긴 노후를 위해서는 하늘의 비만 기다리며 농사를 짓는 천수답 수준으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을 가두고 물길을 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의 기본은 국내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발전한 국가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포함하는 무역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 연 1조 달러를 넘나들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국가의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동조화 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나 충격에 민감한 금융투자를 할 경우에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떠한지, 혹은 급속하게 성장하거나 위축되는 산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면 투자의 분야나 시점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 만들기>

- ◎ 언론사의 국내외 경제뉴스에 늘 관심을 둔다.
 - 기업의 실적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관심을 갖는다.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가 해당국의 경기 상황을 잘 대변하기 때문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기 전망과 관련한 뉴스에 관심을 갖는다.
- ◎ 경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습관을 키운다.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 ◎ 경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거나 경제 관련 잡지를 구독한다.

효율적인 퇴직금 관리

퇴직금, 나의 노후를 지키는 보디가드

“솔직히 퇴직 후 3년 후에 만나면 퇴직금 가지고 있는 사람 반도 없어요. 아들 주고 어디 주고 주식해서 날리고.... 퇴직할 때 그 보다는 더 알찬 내용으로 교육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했다면 그렇게 될 일이 없는 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해서 돈을 생각지 않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취기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 관리 방법을 파악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성취수준

초

다양한 퇴직금 관리 방법을 비교해 평가하고 자신의 재무 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다.

중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 관리 방법을 파악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

퇴직금의 의의와 퇴직금 관련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퇴직금의 의미, 그리고 제도의 변화

개인은 노후 생활비를 주로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당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해 노후 생활비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 380여만 명 중 약 76%인 286만 명이 월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5%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보완할 개인연금도 40대는 28%, 50대는 22.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60대는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려는 인식이 많지 않거나,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금과 그 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정년이 짧고 축적된 자산이 많지 않아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을 주로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비용, 그리고 은퇴 후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는 경우가 많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퇴직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퇴직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관련 제도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들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운용하면 노후를 좀 더 안락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입된 지 60여 년 된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산할 경우 체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수급 방법에 따라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사외적립 비율이 2014년에는 70%였으나, 2020년에는 100%를 사외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도산에 따른 위험은 사라집니다.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반면 DC형의 경우는 기업이 연간급여 총액의 1/12을 1년에 한 번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본인이 직접 운용함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유형의 제도입니다.

표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구 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념	- 회사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 회사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 수령
퇴직급여	- 사전에 확정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성과에 따라 변동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운용주체 및 책임	사용자(회사)	근로자

출처: NH투자증권

한편,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제도는 DB형 혹은 DC형으로 쌓아 놓은 퇴직연금을 받는 계좌로서 퇴직 무렵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제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제도는 회사에 재직 중일 때도 가입이 가능한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노후를 대비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이 나에게 유리할까?

2022년이 되면 퇴직금제도는 사라지고 퇴직연금제도만 남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과 DC형 중에서 자신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안정성은 강화되었지만, 유형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잘 운용하지 못한다면 원금 혹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유형을 선택할 때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본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이직해서도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DB형은 개인의 계좌가 아닌 회사의 계좌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바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장이 안정성이 높아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정년이 보장될 경우, 그리고 임금인상률이 비교적 높을 때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낮거나 체불 위험이 큰 기업의 근로자 또는 직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연봉제 근로자들은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은?>

구 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기업·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정년이 보장되는 기업 - 도산 위험이 낮고,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가능한 기업	-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 -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연봉제 근로자

물론 한번 선택한 연금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의 판단 하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의 DB형이나 DC형으로의 전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는 계좌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로도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적립된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유형으로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가 DC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DC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표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전환 전	전환 후	전환 가능 여부
퇴직금제도	DB형	가능
	DC형	가능
DB형	퇴직금제도	불가(장래분만 전환 가능)
	DC형	가능
DC형	퇴직금제도	불가(장래분만 전환가능)
	DB형	

출처: 김건·이현중, 『행복한 노후대비 100문 100답』, 평단, 2018

퇴직금을 나의 노후를 지키는 보디가드로 인식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자산 구성 비율이 비금융 부문은 86.3%, 금융 부문은 13.7%인 반면, 스웨덴은 비금융 부문이 59.0%, 금융 부문이 4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월급처럼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의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중 퇴직급여 수급(만 55세 이상)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형태 수령은 2.1%(금액기준 2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근로자들이 적립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18년 현재 1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간 수익률은 1.01%에 불과(5년 기준 1.88%, 10년 기준 3.22%)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대책’을 통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의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높여 기업이 운용하는 DB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기회는 커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은 퇴직금 운용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는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납입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일시불이 아닌 월 단위로 수령해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이 나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디가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

무서운 의료비 지출, 똑똑하게 대비하기

“남편이랑 제가 건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해도 노년에는 질병에 시달릴 수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한다고 생각했다면 조금만 적금도 더 들었을 거고....”



“노년에는 어느 누구도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의료비 지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그때 당시 힘들더라도 돈을 모은다거나,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성취기준

의료비 지출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중

의료비 지출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하

노후에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 내용과 지출 규모를 말할 수 있다.

통계청이 2019년 9월에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기 전에는 노후 준비를 할 때 의료비의 부담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큰 금액의 의료비 지출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노후 의료비, 더 늦기 전에

의료비 증가에 따른 충격은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애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는 65세 이후에 발생합니다.¹⁾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면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의료비통계지표’와 통계청 ‘2015년 생명표’를 토대로 분석해 2017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의료비는 1인당 8,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평균 6,488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약 1,612만 원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미래의 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연금 또는 저축 상품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해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거나 노인장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및 한·일 특성 비교」, 2012

기요양보험과 같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도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건강검진²⁾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고 관리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망자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후 질환이 발견되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 ◎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 복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과 개인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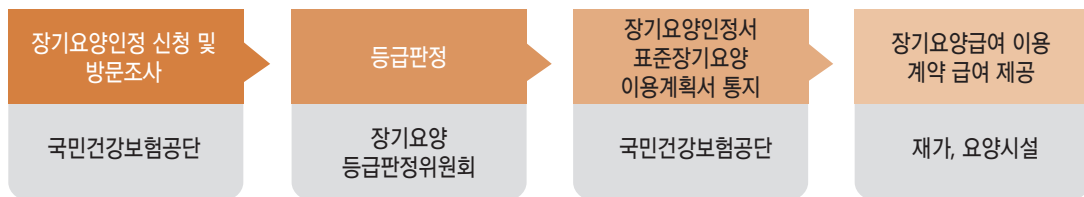
정부는 일반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정부가 정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³⁾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3)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하는 재가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보험 알아보기⁴⁾

정부는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노후 의료비 준비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과 같은 개인의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버암보험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암(2위 심장질환, 3위 폐렴)으로, 인구 10만 명당 763.0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암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령자의 대표 질환입니다.

암보험은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암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60세인 데 반해, 실버암보험은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61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금융감독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 은퇴기 편 <노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2015, 48~50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암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9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따라서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는다면 계약이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암 진단 확정 시점이나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므로 차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암, 폐암과 같은 일반암은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 반면, 갑상선암과 같은 소액암은 보험금이 30% 이하로 지급됩니다.

*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간병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에 간병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합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이면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가입 전에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가입하려는 간병보험 상품과의 지급 조건 차이를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치매보험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해당 인구 중 치매환자 수)은 2018년 10.2%이며,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⁵⁾ 이에 따라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보험은 치매진단비, 간병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만 보장하

5) 보험연구원, 「최근 치매보험의 이슈와 과제」, 2019

는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는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지 보장 폭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치매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므로 보장 기간도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령자의 가입이 어려웠던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4년 8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만 50~75세인 경우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만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지만 그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항목(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은 20%, 비급여항목(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은 30% 정도 더 높습니다. 즉, 실제 의료비의 70~80%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금액 한도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높습니다.⁶⁾

노후실손의료보험도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나 약제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제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여유 자금을 미리 마련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여 건강한 은퇴생활을 준비해야겠습니다.

6) 연합뉴스, 「50세 이상은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료 아끼세요」, 2016. 10. 12.

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현혹되지 않는 자세 및 소비 피해 관련 구제 제도의 이해

노년층 대상 사기! 조심하세요

“귀가 젊어서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이에요. 사기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 많거든...”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결과는 상조 상품이에요. 거기 보니까 5박 6일인가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울릉도 그박 3일 티켓 주고.... 1만 원 받아서 그게 가능합니까?”

성취기준

허위 광고, 강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기법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는 제도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허위 광고, 강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기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 구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중

허위 광고, 강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기법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는 제도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기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핵가족화에 따라 노년을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 후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금융사기나 악덕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대상 사기 사례입니다.



(따르릉)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홍길동입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지금 어르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알려드리는 계좌로...

평소 암, 심장질환 등 병원 진료를 받고 있던 60대 여성 A 씨는 땀다방(홍보관)에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건강식품 20박스를 36개월 할부로 5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달 A 씨는 해당 식품의 섭취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청구하는데...



고령으로 범죄 인식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금융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로, 그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에서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¹⁾ 60대 이상의 피해액은 2017년에 비해 233.3%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이 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 및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했습니다.

금융사기 유형별 주요 특징과 예방 방법²⁾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금융사기입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로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영어로 목소리란 뜻의 Voice와 개인정보라는 뜻의 Private Data,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을 합성한 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공공기관사칭형,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 상담 등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돈을 보내도록 요구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수준!」, 2019. 2. 27.

2)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2018)」를 바탕으로 작성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고빙자형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밍

파밍은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고, 피해자가 가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알아낸 사기범이 돈을 빼내갑니다. 또한 피해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 스미싱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전자금융사기(Phising)의 합성어입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핸드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몰래 탈취하는 금융사기입니다. 돌잔치, 택배안내 등 관심을 가질 만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씁니다.

* 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요청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주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별 생각없이 송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 방안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10계명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만 잘 숙지해도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2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4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7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9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만약 금융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 112

피싱사이트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 1332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 소비자 피해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악덕상술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 악덕상술이란 사업자가 공짜 물품 제공, 무료 관광 제공, 신분사칭, 설문조사 빙자 등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판매방법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0%가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³⁾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70.7%)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 소비자의 피해금액은 1인당 연간 125,6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덕상술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⁴⁾

다양한 악덕상술 중에서 노인들의 피해가 많은 유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은품 제공 상술

사은품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제품을 구입하거나, 한번 배달된 제품을 쉽게 반품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입니다. 사은품의 대가로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품 판매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만적인 상술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고령 소비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상술 피해 입어」, 2016. 9. 28.

4) 공정거래위원회, 「할머니 할아버지! 악덕상술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를 바탕으로 작성

*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노인정에서 경로잔치를 베풀어 주고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물건 등을 판매하는 상술입니다. 잔치나 건강 강좌 등에 초대하면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제품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 당첨, 공짜 상술

하나를 사면 공짜로 하나를 더 준다거나 ‘당첨’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유인해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상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 대가 없이 공짜 상품을 제공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반품·환불) 방해 및 거절

물건을 강매 한 후 포장박스를 판매자가 수거해 가거나 소비자에게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해 상품이나 포장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상술입니다. 제품 구매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포장을 훼손하지 말고, 견본을 요구하여 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품이 배달되거나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 1372)에 전화를 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이 소비자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합의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큼니다.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물건을 강매당하여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주의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 및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

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

“내가 걱정하게 받고 있는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가가 너무 적어요... 노인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착취 수준인 거죠.”

성취기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탐구해 제시할 수 있다.

중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할 수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빌어 배달 일을 한 지 3년이 돼가는 A 씨(76세)의 월급은 65만 원, 31일을 한 달로 잡았을 때 시급은 3,700원 수준이다.

매일 서울의 한 치기공소에서 본뜬 치아들을 챙겨 경기도 일대의 치과에 배달을 나가지만, 법정 최저임금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오히려 “괜찮다”고 한다. A 씨보다 4시간여를 더 일하고 같은 돈을 받거나, A 씨와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일당 1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어서라고 한다.

A 씨는 “시세”가 워낙 낮으니까, 혼자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출처: CBS노컷뉴스, 「‘어르신 노동시장’,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없다」, 2018. 10. 2.

최근 뉴스나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노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불안정한 일자리 현황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자료¹⁾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은 41.1%로 양호한 편이지만, 비임금근로자²⁾의 비중이 52.8%로 높고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이유나 자아실현, 사회공헌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연도별 중위 임금의 2/3 미만) 비중이 노인가구는 95.1%로, 33.0%인 비노인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

1)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2018. 2. 2.

2) 비임금근로자: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말함(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노동권이란 무엇일까?

노동자로서 자신이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권이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규율할 법을 제정해 개입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부여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 규율하고 감독하는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³⁾ 노동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118~121쪽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의 내용과 같이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로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권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이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면

4) 근로계약, 최저임금, 주휴수당, 체불임금에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총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 근로계약기간
- ◎ 근로시간, 휴게시간
- ◎ 휴일, 휴가
- ◎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결정해 고시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이하 시간급 기준)은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이었고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www.minimumwage.go.kr)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모의계산기에 차례로 입력하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도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A 씨. 그는 주휴수당이라는 임금 자체를 모르고 올해 초부터 근무해 왔다. 최근에서야 이 수당에 대해 알게 됐지만, 편의점 주인이 당연히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출처: 스냅타임, 「“주휴수당 아세요? 꼭 챙기세요”」, 2018. 7. 3.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이 2016년 11월 4~11일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응답자 774명)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비율은 37.9%에 그쳤다.

출처: 조선비즈, 「[정책이 헛돈다] “주휴수당이 뭐예요?”…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은 ‘숨방망이’」, 2016. 12. 1.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기사 내용과 같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기지급일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또는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앞서 소개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적극 대처해 우리의 소중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디지털 세계로 초대합니다!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컴퓨터를 모르면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는 무지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딱 하려고 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컴퓨터로 뭘 해보려고 하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성취기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중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의 보급 이후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컴퓨터와 랜선이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새로운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변화에 더욱 취약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욱 빨라질 앞으로의 변화에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 어렵다는 이유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멀리하기보다는, 내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 익숙하지 않을 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원하는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거치는 곳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이메일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포스트를 운영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털사이트로는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포털사이트로는 구글(www.google.com)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들은 각종 뉴스와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등 주제별로 읽을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 관련 뉴스나 기사,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와 같은 개인이 제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포털사이트에는 글과 사진 중심의 자료가 많다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www.youtube.com)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자료는 생동감, 현장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 자료가 많지만, 이 중에는 검증되지 않고 편향된 내용의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지 말고 여러 정보와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이용자가 시청한 콘텐츠와 유사한 것들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쪽 의견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와 경제교육을 주제로 ‘경제배움e(www.econedu.go.kr)’를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참가격(www.price.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포털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경제활동

* 준비운동: 본인인증 시스템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습득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세금 납부나 부동산 관련 신고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전자신분증입니다. 1999년 7월에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이나 보험, 모바일뱅킹 등의 생활 영역에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번거로운 절차와 보관 방법, 시스템 불안 등의 문제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으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9월에 공인인증서 폐지 및 신기술 전자서명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의 약자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경우에만 아이핀 계정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일종의 코드를 송신한 후 해당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체인증은 스마트폰에 자신의 생체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해 두고 이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기능이 고도

화됨에 따라 생체인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금융 거래나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점점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은행 업무 및 결제 시스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거나, 신용카드나 현금을 실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례 은행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예·적금, 대출, 공과금 납부, 송금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에는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결제 정보를 불러와 간편하게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업무나 결제는 편리한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이용자의 착오로 인한 오작동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정부24 활용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9만 여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토지대장, 전입신고 등의 민원사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검색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정부24 민원서비스

자주 찾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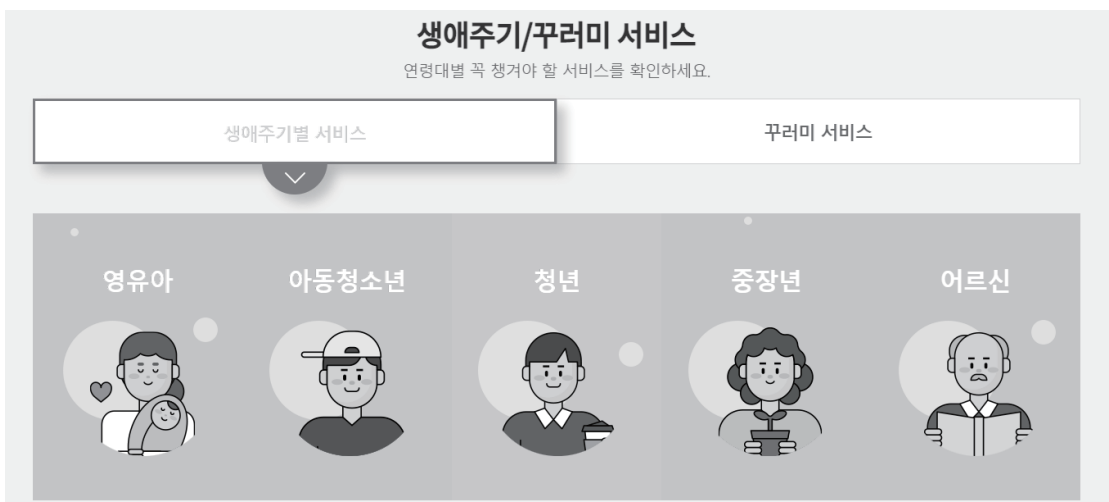
민원 신청·발급을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출처: 정부24(www.gov.kr)

또한 정부24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돌봄, 교육 취업, 노후자금 마련, 상속과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 후 창업이나 취업 지원,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와 여가활동, 의료 돌봄, 일자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꾸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림 정부24 생애주기별 서비스 화면



출처: 정부24(www.gov.kr)

디지털 세계로 초대합니다!

“신문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차분히 신문 볼 시간도 없는 데다 웬만한 기사는 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접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뉴스를 볼 수가 있고 유튜브를 즐겨 보는 시대에 요즘 누가 신문을 읽어요? 방송 뉴스도 잘 안 보는 판에…”

“책보다 웹 소설이나 웹툰(만화)을 즐겨요. 책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저렴하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출처: 세계일보, 「“요즘 누가 신문 봐요? 스마트폰 있는데”... 지하철서 사라진 아날로그 일상」, 2019. 11. 7.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손안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다양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전화번호부를 찾기보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말하기보다는 무인 기계(키오스크) 앞에 서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입력합니다.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표를 끊을 때도 매표원이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무인 발권기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본 적 없는 기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장·노년층의 65.8%가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42.4%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을, 29.3%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들어서’라고 응답했습니다.¹⁾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장·노년층의 89.8%가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사회와는 건잡을 수 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 2019, 92~130쪽

정부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해 2000년대 초부터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노력한다면, 새롭고 한층 더 편리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로 초대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운동: 내 일자리 찾기

“예전에는 의욕을 가지고 뭔가 배우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의지가 적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누가 나를 써주려나.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보다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끼고 마음은 노년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신체적으로 노년이고...”



“직장 내에서 퇴직 후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이 꼭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순 특강 정도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는 현업과 연계를 하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쟁이 끝나는 순간에 끝이니깐...”

성취기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중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하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기대수명이 100세에 다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제연합(UN)에서는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1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¹⁾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은퇴 이후의 경제생활도 길어졌습니다. 흔히 은퇴 이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준비운동이 필요할까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은퇴 후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 중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전체의 62.4%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²⁾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응답자 중 58%가 ‘생활비’를, 34%가 ‘일하는 즐거움’을 그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경험은 녹슬지 않는다

영화 <인턴>은 나이가 일하는 데 장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30세의 젊은 사업가인 줄스 오스틴과 그녀의 개인 인턴, 벤 휘태커. 이 인턴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 아닌, 은퇴한 70세의 노인입니다. 줄스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은퇴한 벤은 이 프로그램에 합격해 줄스의 개인 인턴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줄스는 벤에게 다른 부서로 가길 권하는 등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연륜과 오랜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 덕분에 벤은 줄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1) 국제연합(UN),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7, 만 55~79세 대상

주인공 벤은 “경험은 녹슬지 않는다(Experience never gets old)”고 말합니다. 줄스는 유능한 사업가이지만 아직 젊기에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벤이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험은 늙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줄스와 벤의 이야기는 단지 영화 속의 일만은 아닙니다. 영화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고령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나누어 주실 건가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일까?

「노인복지법」에 따라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 참여를 장려·지원하고 있습니다.³⁾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과 일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 기부, ‘사회활동’

‘사회활동’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사회활동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노(老)-노(老)케어,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 학교·도서관·공원 등에서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력을 활용해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의 안전 관리, 노인 상담, 학습 지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활동에 참가하면

3)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일자리 예시	성격
사회 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서비스 제공	취약 노인 지원, 학 교·도서관·공원에서 의 봉사	봉사 활동
	재능나눔 활동	만 65세 이상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력을 활용해 상담 이나 교육을 진행하 는 활동	노인복지시설에서 상담, 학습지도 등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웹사이트(www.kordi.or.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개

* 재취업에 도전한다면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활동보다 근로의 성격이 강하며, 근무에 대해 월 급여를 제 공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련된 능력이나 경험을 요구하거나 일자리와 관련된 교 육을 받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일거리는 다양합니다. 사회서비스형에서는 장애인시설·노인지원시설·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정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생활지도, 식사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는 최대 59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매장이거나 전문 직종 사업단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 단에서는 쇼핑백 제작, 상품 포장, 아파트·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식품 제작 및 판 매, 농산물 경작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인력파

견형사업단은 주로 교육·경영·영업·조리 및 음식 서비스, 작물 재배 등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시니어인턴십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신청 후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직 고령자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도슨트(전시해설사), 간호사, 조리사, 판매원, 영화관 도우미 등의 직종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일자리 예시	성격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계층 지원시 설 및 돌봄시설 등 활동 보조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장애인시설 식사지원 등	근로
	시장형 사업단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자 가점 부여)	노인 적합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 에서 일자리 제공	아파트·지하철 택배, 세 차, 세탁, 식품 제작 및 판매, 초등학교 급식도 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지역영농사업 등	
	인력 파견형 사업단	만 60세 이상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거 나 관련된 업무능 력이 있는 사람에 게 일자리 연결	교육 관련 종사자, 경영· 영업 관련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작물 재배 종사자, 생산· 제조 단순 노무직 등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를 인턴으 로 고용하는 기업 에 인건비를 지원 해, 노인의 직업능 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 촉진	도슨트(전시해설사), 간 호사, 조리사, 판매원, 영화관 도우미, 전기검 침원, 패스트푸드 크루 (직원), 주유원 등	

주: 노인일자리 6가지 유형 중 사업참여 기업이 아닌 구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4가지
유형만 선별해 기재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조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웹사이트(www.kordi.or.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개

은퇴 전까지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한 A 씨(만 65세)는 어떤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재능나눔으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싶다면, 강사 경험을 살려 교육 관련 일자리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도슨트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

다음은 재능나눔활동 사업에 참가한 B 씨(60대)의 사연입니다.⁴⁾

친구를 통해 접하게 된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재능나눔활동에 대해 교육도 받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구체적인 활동방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재능나눔활동이란, 건강하고 지혜가 있는 노인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노인을 발굴해 지원하고 돌봄으로써,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용기를 얻어 교회, 병원 등 평소 활동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85세의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댁을 찾아가 보니 주거 환경도 열악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르신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외출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집안 살림이나 다른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르신이 점점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우울증 증세가 나아졌고 평소에 복용하

4) 보건복지부,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 2015, 192~195쪽 내용을 토대로 작성

던 약이 많이 줄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사는 것도 활기차고 재미가 있단니까!”

어르신도 행복해 하셨지만 저 또한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정신도, 신체도 20년 이상 젊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과 건강에 의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재능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자리 정보, 어디서 찾지?

일자리 정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전화로 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역구청 및 읍·면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의 지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인터넷에 등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미리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면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시니어사회활동포털인 ‘100세누리(www.100senuri.go.kr)’가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전국 민간기업과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등록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종과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를 선택해 맞춤형으로 구인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가

입 후 간단한 이력서를 작성해 입사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 복지정책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www.goldenjob.or.kr)에서도 기업들이 등록한 구인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구직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면 각 노인종합복지관과 자치구 등의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1 구직상담, 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비원, 지하철 배달원, 가사관리사, 계산원 등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표 일자리 정보 제공 기관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100senuri.go.kr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www.goldenjob.or.kr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지원센터	www.ksvsc.or.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전화로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상담창구	☎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88-1697
	시니어인턴십 문의	☎ 1577-1923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일자리 정보, 직접 찾아봅시다!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과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아래의 정보를 스스로 검색해 본 뒤,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에서 찾기

Q1. 웹사이트에서 간편이력서를 작성해 보세요.

Q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찾아보세요.

Hint! ‘일자리’ 메뉴에서 ‘시니어인턴십’을 클릭하세요.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찾기

Q1.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구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고, 필요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 ① 이력서 1부
-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 ③ 구직신청서
- ④ 통장사본

Q2.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서를 다운로드해 보세요.

Q3. 웹사이트의 시니어직업능력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 보세요.

▶ 뒷장에서 확인하기

📌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에서 찾기

Q1. 웹사이트에서 간편이력서를 작성해 보세요.

간편이력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회원가입부터 해야합니다. 웹사이트 메인화면 맨 윗줄의 ‘회원가입’을 클릭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로그인’합니다. 그 후 웹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일자리검색’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서 ‘개인서비스’를 클릭한 후 ‘간편이력서관리’에서 등록하거나,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간편이력서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력서를 등록한 후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해 보세요!
오른쪽의 검정색 QR코드는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구인정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보세요!



Q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찾아보세요.

Hint! ‘일자리’ 메뉴에서 ‘시니어인턴십’을 클릭하세요.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정보를 클릭하면 업체의 주소나 문의전화, 인턴기간 및 근무시간, 임금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자격과 근무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찾기

Q1.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구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고, 필요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취업알선' 메뉴 클릭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메인 화면의 오른쪽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정답은 ④ **통장사본**입니다.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Q2.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서를 다운로드해 보세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취업알선' 메뉴 클릭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메인 화면의 오른쪽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서 다운로드

구직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Q3. 웹사이트의 시니어직업능력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 보세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취업훈련' 메뉴 클릭 후 '교육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제출서류,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정사각형들이 들어 있는, 마치 특수문자 같
이 생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빠르게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길거리의 광고판이나 포스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바코드와 비슷하면서도 더 많
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인식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애플리
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QR코드’ 혹은 ‘QR코
드 스캔’ 등으로 검색하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옵니다.
또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QR코드를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70대의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의 책 제목입니
다. 71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⁵⁾로 전직한 할머니는 일명 ‘Korea Grandma’라는 별
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180도 바뀐 데에는, 함께 유튜브

5)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YouTube)는 사용자가 직접 동영상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자신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이익을 얻는 직업으로, 주로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음.

채널을 운영하는 손녀딸의 도움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경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길어진 만큼, 앞으로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박막례 할머니처럼,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늘 내일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기대도 해보시기를. 인생은 길더라고요.”

- 박막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내 주변 경제 환경, 어떻게 바뀌고 있나

“사회가 변화가 심하고 하니까 일단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라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워낙 요즘 바뀌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중략)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경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시대 자체가 확 빨리 바뀌니까요.”

성취기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와 위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감에 있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고, 인구 과밀을 걱정하던 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일상을 비롯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유례가 없었던 일로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눈을 감고 외부와의 소통에 문을 닫는다면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구구조가 달라지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한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연도	0~14세	65세 이상
1970년	42.5%	3.1%
2000년	21.1%	7.2%
2020년	12.2%	15.7%
2050년(예상)	8.9%	39.8%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이렇게 인구구조가 바뀌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의 장년층이 노년 이 될 때까지는 주택 수요가 크게 줄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 어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203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 으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 다.¹⁾ 주택 임대료 수입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속 성 장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소유자들 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주택시장에 변화 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 구입비용, 지역적 특성,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여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동산을 구 입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급 하게 처분하려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사전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성 부동산을 선택할 때에는 수익률뿐 아니라 관리비, 부동산수수료, 공실 가능성 등 다양 한 항목을 고루 점검해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변화가 건물 1층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은행 점포 대신 ATM(현금자동입출금기)만 남은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최근엔 ATM마저도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의 확산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7년 4월 에는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입니다. 이렇듯 금융 환경도 점점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 『나라경제』, 「급속한 인구 고령화, 주택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2016. 5.

국가 간 자금 이동과 투자가 활발해지는 금융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국의 금융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금융이나 사이버거래가 보편화되는 금융의 디지털화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금융회사는 지점과 인력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거래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이나 디지털 금융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거래 시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파고(AlphaGo)와 유튜브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직업의 변화일 것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의 범주도 단순노동직을 넘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변호사, 번역가 등 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에는 정보통신기술이 있습니다.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 물건과 물건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사물인터넷, 방대한 자료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첨단 기술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도 많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을 다루는 능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이거나 감성적인 역량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개념이 ‘연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입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호텔이나 차를 가지

고 있지 않으면서 숙박과 차량 이용자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이들과 보고 싶은 이들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제작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일정 장소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노년층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는 자연스럽고 솔직한 영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국노래자랑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로 주목을 받았던 지병수 할아버지도 유튜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튜브는 누구나 자신만의 스토리로 세상과 소통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몇몇 콘텐츠 공유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취향과 패턴을 분석하여 그와 관련 있는 자료를 계속 추천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콘텐츠만 소비하는 편향 현상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공동체 구성원 간 의견 대립이 더욱 커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져 계층·이념 간 갈등이 깊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되, 여러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 대한민국과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가난했던 한국은 1960~70년대 연평균 10% 내외의 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때와 비교해 최근 들어 지속되는 2~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가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도 과거 개발도상국 때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1960년대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공업화에 힘쓰며,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바꾸어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의 지속과 국민 복지, 균형 발전, 국제화와 자율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산업정책은 IT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와 주력 산업의 수출 지원, 기초생활 보장과 돌봄체계 강화, 혁신산업과 인재 양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생활 속 안전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 등이 있습니다.²⁾

대한민국은 이제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1조 7천억 달러), 수출 세계 4위(6천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 세계 24위(3만 4천 달러)의 경제대국입니다(2018년 기준).³⁾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2019. 3. 26.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960~90년대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⁴⁾를 받던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선진 공여국 모임인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저개발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속 성장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들 나라에 경제발전 경험을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왼쪽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가정하고, 현명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맞이한 상황	나의 대처 방법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 직장을 은퇴할 예정인데, 아들이 2년 후 결혼하겠다고 한다.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집 앞에 주거래 은행이 있어 수시로 방문하여 예금상품도 문의하고,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들곤 했다. 은퇴자금의 투자를 문의하러 오늘 지점에 방문했다가 다음 주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막례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을 재미있게 보다가 나도 유튜브로 활동하고 싶어졌다. 나는 어떤 콘텐츠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2019. 3. 26.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4) ODA(Official Development Aid):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물자를 빌려주는 것

노후를 위한 각종 제도의 이해와 활용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서비스

“연금은 정부에서 30년 전인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탐탁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연금이
보탬이 돼요.”



“모든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매스컴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것저것 복지제도를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취기준

성취수준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상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활용한 후 주변 동료와 함께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중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하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탐색할 수 있다.

2018년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주문을 잊은 음식점>의 제작진이 “주문한 메뉴와 다른 음식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라고 묻자, 손님은 “더 맛있게 먹지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와도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과연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경증치매인 할머니와 할아버지(70~80대)가 식당에서 서빙하며 사회 생활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서빙을 하다 말고 테이블에 앉아 손님과 대화하거나, 주문 내용을 잊어버려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 실수는 잦았지만, 종업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치매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시청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치매 외에도 노후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중에 연금과 생활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입소문 내주세요!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복지로’

정부는 매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보건복지부의 ‘복지로(bokjiro.go.kr)’를 활용해 노후 관련 복지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지역별 검색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방문하지 않

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 요청하기’에 글을 작성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사연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올릴 수도 있어,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A 씨의 사연입니다.¹⁾

“아버지께서는 경증치매환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해졌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지만, 아버지의 이상행동이 더욱 심해졌고, 성적인 문제 행동까지 나타나 더 이상 가사도우미를 쓸 수 없었습니다. 자녀 간에 부양 부담이 날로 커져 형제 간의 다툼도 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버지의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들 덕분에 자녀들이 안심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숨통을 트여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0년 치매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10%로 약 12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에서 무리하게 치매환자를 감당하다 보니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1) 보건복지부,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 2015, 196~198쪽 내용을 토대로 작성

니다. 특히, 치매 치료 및 병간호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가족 갈등을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²⁾ 위의 사례처럼 치매가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은 1:1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 내부에 설치된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 카페는 어르신의 건강 안정화와 치매 지연을 돕고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상담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운영하며, 치매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웹사이트(www.nid.or.kr)를 통해 치매에 관한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가족 모임’과 같이 지역별로 치매 가족이 모여 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치매자가진단 서비스,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이 저조했으며, 뒤늦게 가입해 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2) 보건복지부, 「2015년 기준 치매환자 의료비 및 요양비」, 1인당 연간 총 2,033만 원

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³⁾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의 단독가구일 때,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주: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의미하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뜻함(2020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의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에 접속해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봅시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3)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1355)를 걸어 필요한 서류(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를 물어보고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보험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국가가 운영하여 관리하는 공적연금입니다. 60세 이후 소득이 없을 때(노령연금), 장애가 생겼을 때(장애연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60세가 되기 전, 소득이 없어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55세 이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은 60세에 수령하는 것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도장(서명가능)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위기를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요양보호사가 가장으로 방문해 목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건강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그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향상 유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지역, 천재지변, 개인적인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에서 가족요양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로 전화(☎ 1577-1000)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찾아보고 신청합시다

노후복지서비스에는 앞에서 다룬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보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인터넷 및 모바일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지속적인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

노후의 행복, 지속적인 준비와 실천이 중요

“젊었을 때는 경제고 뭐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좀 더 일찍 모든 것을 계획해서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나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가족, 하나의 가족으로만 생각을 했죠. 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노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을 받았으면....”

성취기준

노후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성취수준

상

노후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마련할 수 있다.

중

노후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하

노후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고령층인 80~90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부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이 태어난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산업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된 직후였으며, 당시에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이 외국의 원조로 채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가난의 참상을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 노후의 삶

베이비부머들은 정부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펼친 수많은 캠페인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표어나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출산율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970년에 4.53명이던 출산율은 1975년 3.43명, 1980년 2.8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사교육의 심화로 높은 교육비의 부담을 느낀 베이비부머들은 자연스럽게 2명 내외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유년시절 가난을 경험하고 부모의 교육열을 보고 배운 베이비부머들은 가난의 굴레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녀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른 형제들도 직·간접적으로 부모 봉양에 참여했습니다.

이같이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매진해 온 베이비부머들은 충분한 노후 대비 없이 은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모 봉양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해 왔으나, 정작 그들은 봉양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고용 불안과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게 됐고, 이에 수명이 길어진 부모를 봉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도 1~2명만 낳는 경우가 많아 그들 역시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 일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8명(2019년 3분기 기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인식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베이비부머 이후 모든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넓은 복지사회가 구현되어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날이 오지 않는 한 각자의 노후는 각자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요한 노후의 삶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은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달랑 집 한 채 밖에 남은 게 없다. 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집이 한 채라도 있어서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수령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의 삶을 꾸려나갈 여건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퇴자들이 빠른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현재의 생활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예·적금은 금리가 연 10% 수준에 달해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 만기 예·적금 금리는 1~2%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보전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이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연 7% 수준의 고속 성장을 구가해 왔으나, 지금은 연 2%대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변화 속에 대내외적으로 찾아온 위기와 충격을 경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그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충격이나 변화가 찾아와 노후의 경제생활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꿈은 실천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한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한 카드회사의 광고 카피가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 카피의 의미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보편적인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과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물가 상승과 같은 요인으로 줄어드는 금융자산을 지키고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구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취업률을 보

면, 60대의 취업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경제적 문제 때문이지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무리가 없으면 일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보충하고, 삶의 보람과 활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온 삶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지식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를 넘어서라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비는 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¹⁾이 40%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의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가입률이 12.6%(2017년 기준)에 불과해 은퇴자들의 보편적인 노후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60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9% 수준이고,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의 가입률도 22%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은 잦은 이직에 따른 취업공백기의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퇴직금과 거리가 먼 형편입니다.

결국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은퇴를 한다고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선택에 따라 다르긴 하나, 현재는 정년 후 3년이 지난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더 늦어집니다. 이처럼 은퇴 후 수년간 고정수입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Crevass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틈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구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1)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

이같이 소득이 끊기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퇴직금(혹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메울 수 있지만,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시불로 받아 빠르게 소진해 버리면 길어진 노후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의 중요한 보루인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자의 76%가량이 월 5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크레바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개인연금처럼 그간 축적한 재원을 잘 활용하되, 추가적인 소득 창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안락한 노후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넘기지 못하면, 노년의 빈곤은 남이 아닌 자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긴 노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설계하고 시작하라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나 은퇴를 목전에 둔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나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2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소득이 발생해 노후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돈을 예치하면 월 30만 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백지 위에 놓고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살지 설계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어떤 규모로 고정수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출 규모를 설정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것

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취업, 보유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의 소비 수준은 잊어버리고, 은퇴 후 줄어든 소득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과 삶의 중심에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후 경제활동을 위한 팁

*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지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 ◎ 총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고정수입 규모를 파악한다.
- ◎ 노후의 삶을 위한 생활비 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리한다.
- ◎ 빚이 있다면, 높은 이자의 빚부터 빠르게 상환한다.

* 새로운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 ◎ 경제활동을 통해 노후자금을 보충한다. 필요할 경우, 재취업을 준비한다.

* 위기 관리 역량을 높인다

- ◎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위험회피 방법 등을 숙지한다.

◎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므로 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 노년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

◎ 노년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노인긴급자금대출과 같이 비상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음을 알아둔다.

※ 긴급자금지원 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 주택보유자는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 배우는 삶을 즐긴다

◎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등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종종 방문해 여러 강좌에 참여하면서 배움을 이어간다. 배움과 함께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기 획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집 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공은주 KDI 경제정보센터 학교경제교육팀장
이성신 KDI 경제정보센터 교육기획팀장
윤희원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안선경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임효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조선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윤승희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오성록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김영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이강선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서한나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자 문 신성진 재무심리센터 대표
임희정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문 의 044-550-4650, sslee@kdi.re.kr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